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17>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마라

학승이 질문했다.
“대도는 뿌리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 표현해야 하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그대가 벌써 받아들여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승이 질문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이미 뿌리가 없는데, 묶어 놓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問 大道無根 如何接唱
師云 你便接唱
無根又作麼生
師云 既是無根 什麼處繫

대도는 뿌리가 없다는 것은 대도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공감하는 말이다. 하늘과 땅이 있는 이상 대도는 넓고 크다. 그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음이 없고 나타나지 않음이 없으나 그 실체는 보이지 않고 뿌리 또한 없다.

따라서 사람이 질문하는 순간에도 대도는 나타난다.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천초목이 가만히 서있어도 대도는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대도는 한계 지을 수 없고 가히 무엇으로도 묶어 놓지 못한다.

그러므로 만일 대도에 통달한 사람이라면 그 쓰는 것에도 무한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선사들의 방화와 즉문즉답이 화통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학승이 질문했다.
“바른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알아차려 집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알아차린다.”
학승이 질문했다.
“어디에 허물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이 답했다.
“허물은 ‘찾는 것’에 있다.”
학승이 말했다.
“그렇다면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수행해야 해.”

問 正修行人 莫被鬼神測得也無
師云 測得
學云 過在什麼處
師云 過在覓處
學云 與麼即 不修行
師云 修行

어떤 스님이 나이 60세가 넘도록 참선수행을 해보지 못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늘 참선 수행을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하루는 저승사자가 나타나 이름을 불렀다. 스님은 저승사자가 이렇게 팔리 올 줄 몰랐다. 그래서 저승사자에게 7일간만 유예를 달라 부탁했다. 죽기 전에 참선을 해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으나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을 듣고 난 저승사자는 7일간 유예를 주기로 하고 돌아갔다.

그 후 스님은 열심히 참선수행했다. 이것저것 다 밀어 놓고 오로지 선정 삼매 하나에 몰두해 열심히 수행했다. 7일이 다 될 즈음에는 드디어 적정삼매에 빠졌다. 마음은 고요하고 그 무엇에도 정신을 혼란하게 하지 않는 무념무심 삼매에 깊이 들어갔다.

저승사자가 7일 만에 스님을 찾아왔다. 그러나 스님은 방안에 없었다. 저승사자는 동서남북 사천하(四天下)를 날뛰어 살펴보아도 스님이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알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스님 찾는 것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안편을 점검해 보아라.”
학승이 물었다.
“스님께서는 점검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대답했다.
“점검한다.”
학승이 물었다.
“어떤 허물이 있어서 점검하십니까?”
“자네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問 和尚有言 道不屬修 但莫染污 如何是不染污
師云 檢校內外
云 還自檢校也無
師云 檢校
云 自己有什麼過檢校
師云 你有什麼事

조주 스님의 일관된 주장은 ‘수행하여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일상사에 마음을 오염시키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법은 조주 스님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만일 이 마음을 뒤를 물건으로 생각하거나 뒤야야 부처가 된다는 식의 가르침을 편다면 그것은 해동 남종(南宗)의 선법(禪法)이 아니다.

남종의 선법은 역사적으로 바른 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중국에서 여러 번 불교가 피해를 당해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왔다. 그 뿌리는 대승 경전에 두고 있고 특히 <원각경>과 <화엄경>의 ‘중생이 곧 부처’, ‘중생 성불(衆生成佛)’이라는 부처님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육조 혜능의 선법은 깨달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육조단경>에서 나오는 오인돈수(悟人頓修)이다. 깨달으면 그 자체가 뒤돌고 마친 것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수행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 깨달은 자가 수행하는 것은 불행수행(不行修行)이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육조 스님은 제자 법달에게 “네가 이제 깨달았으면 불행(佛行)을 수행하라”고 분명하게 당부했다.

여기 <조주록>에서도 조주 스님은 남전 스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은 100세가 넘는 노화상이지만 아직도 점검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즉 돈오 보림(頓悟補任)이다. 깨달은 자도 수행하지만 그 수행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의 길을 잘 가려고 수행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한국에는 이 선법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드물다.

■ 무불선원 선원장

수행하되 과거 행위만 고치려 해라

부처가 되려하면 허송세월만 보낸다

스님은 분명히 방안에 앉아있었지만, 저승사자에게는 스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귀신은 사람의 형체를 보고 식별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식별한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든 움직이면 귀신은 즉시 알아챈다. 그런데 스님이 무념무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승사자가 찾지 못하고 돌아간 것이다.

만일 누가 올바르게 수행한다고 해도 부처가 되려고 수행한다면 그는 귀신의 손아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부처를 구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망상을 귀신은 즉시 알아차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행을 중지해서도 안 된다. 마음이 부처인 것은 분명하지만 오래 묶은 세인의 습성은 부처의 길을 가는 것에 방해할 일으키기 때문이다. 수행하되 다만 과거의 행위만 고치려 해라,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아무리 올바르게 수행한다해도 아무 결과도 얻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보낼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들은 바에 의하면 화상께서는 ‘도(道)는 수행에 속하지 않는다. 다만 오염시키지만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22

형상은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시길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다)이라’ 하였고 또 ‘악이색견야 이음성구야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만약에 모습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이 사람은 사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여래를 볼 수 없으리라)’ 하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나타나있는 현상들은 진실하거나 바른 것이 아님을 알지니라. 그러므로 과거에 부처님들이 뉘으신 공덕은 모두 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논하신 것이니라. 마음은 부처님들의 근원이기도 하며 마음은 온갖 죄악의 주인이기도 하니라. 위없는 참된 즐거움이 자기의 마음으로 생겨나고 삼계를 윤회하는 것도 역시 마음에서 일어나니라.

마음이 세간을 벗어나는 문턱이고 마음이 해탈의 나루터이니 출입구를 아는 사람이 어찌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며, 나루터를 아는 사람이 어찌 도달치 못할까 근심하겠느냐.

[원문]

故經云 凡所有相 皆是虛妄 又云若以色見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見如來 以此觀之 乃知事相 非真正也 故知過去諸聖 所修功德 皆非外說 唯只論心 心是衆聖之源 心爲萬惡之主 無上眞樂 自由心生 三界輪迴 亦從心起 心爲出世之門戶 心是解脫之關津 如門戶者 豈慮難成 識關津者 何憂不達

[해설]

<금강경>에 나오는 ‘범소유상 개시허망’은 ‘형상뿐 만 아니라 정신 작용을 포함한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를 뜻합니다.

본래가 형상이 없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온 모든 것 역시 모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뿐입니다.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나라는 생각으로 인해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밝은 지혜가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진 모든 존재는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색견야 이음성구야 시인행사도 불능견여래’는 형상으로 부처님을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구하려는 자는 진리의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는 뜻

입니다.
우주 실상은 마음으로 돼 있고 그 마음을 인격적으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물질이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리로 진리를 구하려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형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표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을 분석해 보면 모두 마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타난 현상계는 진실한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일초 전과 일초 후가 갈지 않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가 마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했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것도 마음을 달랠고 죄악을 짓는 것도 마음에 달렸습니니다.

열반이나 즐거운 세계로 가는 것도 자기 마음에 의해 생겨납니다. 본래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생각이 없는 것인데 함부로 남을 속이거나 헐뜯고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윤회에 떨어지게 됩니다.

중생 세계를 벗어나는 것도 마음에 달렸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해탈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寒山·拾得·豐于三聖圖·69x46cm. 동성 스님 작.

귀신뽑는 신통술! 백초귀장술

찾아온 시간과 모습의 점괘로
왜 왔는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상대방마음을 꿰뚫어 보는 비법!
귀신을 제대로 뽑으면 천도제 권하기가 쉽습니다!!

- * 귀장술12신궁으로 신년운세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직장취업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시험합격운 보는 법
- * 귀장술12신궁의 매매·이동운 보는 법
- * 매물로 내놓으면 매매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 * 언제쯤 매매가 성사 되겠는가?
- * 귀장술12신궁의 금전재물운 보는 법
- *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있겠는가?
- *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습니까?
- * 사업을 확장할까? 다른 사업으로 바꿀까?
- * 동업을 해도 괜찮을까?
- * 부부인연(因緣)에 낀 액운厄運(厄運)시록
- * 집안 동토(동토)귀신 알아내는 법
- * 자녀(자녀)악운(악운)착귀(착귀)탈(탈)정단(정단)법
- * 취직(취직)시험(시험)·승진(승진)시험(시험)의 합격(합격)판단(판단)법
- * 선거(선거)후보(후보)당선(당선)벼슬(벼슬)하는 여부(여부)판단(판단)법
- * 관청(관청)·공무원(공무원)빈자리(빈자리)입관(입관)가능(가능)여부(여부)
- * 소송(소송)·관제사(관제사)의 승패(승패)판단(판단)법
- * 보고(보고)싶은(싶은)사람(사람), 기다리는(가다) 사람(사람) 소식(소식)가능(가능)일(일)
- * 가출(가출)자가(자가) 언제(언제)쯤(쯤) 집에(집에) 돌아(돌아)올(올)까(까)?
- * 잃어버린(잃어버린) 분신물(분신물) 위치(위치) 추정(추정)법(법)
- * 도주(도주)·도망(도망)간(간) 사람(사람)이 어느(어느)쪽으로(쪽으로) 갔(갔)을까(까)?
- * 12신궁 숨어있는 조상(조상)원(원)귀(귀)법(법)
- * 12신궁에(신궁)에(에) 암(암)장(장)된(된) 악(악)령(령)귀(귀)신(신)
- * 귀장(귀장)술(술)歸(歸)藏(藏)術(術)로(로) 보는(보는) 前(前)生(生)투(투)시(시)법(법)
- * 前(前)生(生)의(의) 夫(夫)婦(婦)인(인) 원(원)침(침)살(살)이(이) 現(現)生(生)에(에) 미(미)치는(치는) 현(현)상(상)
- * 귀장(귀장)술(술)歸(歸)藏(藏)術(術)로(로) 뽑(뽑)은(은) 빙(빙)의(의)착(착)귀(귀)신(신)론(론)
- * 귀장(귀장)술(술)歸(歸)藏(藏)術(術)로(로) 뽑(뽑)은(은) 사(사)후(후)死(死)後(後)환(환)생(생) 귀(귀)신(신)작(작)해(해)론(론)
- * 산(산)소(소)·무덤(무덤)에(에) 관(관)해서(해서) [음(음)택(택)법(법)]
- * 무덤(무덤)안(안) 유(유)골(골)의(의) 현(현)재(재)상(상)태(태) 알아(알아)내는(내는) 법(법)

글·백초스님
상·하권 / 720면 / 정가 각 120,000

百超律歷學堂

입금계좌 | 농협 023-02-500940 임현주
신한 010-6413-4443 임현주

비법전수중

(02) 3667-4446
010-3813-4443